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ON

Vol 07. 2018

조선 선비문화 국립전주박물관 '조선 선비문화' 특성화

인물소개 고봉 기대승, 마음을 논하다

학술광장 선비의 나라사랑, 옛 지도로 피어나다



선비처럼 처음처럼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뜻이 담겨있는 ‘처음처럼’이라는 글귀를 들려주면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술 이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에 비해 인간성 상실, 정체성과 소속감의 부재,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으로 몸과 마음을 둘 곳도 모르면서 그저 ‘처음처럼’ 술로만 세상과 인생을 잊으려고 하고 있거나 않은지요.

최근에 만난 두 권의 책 ‘퇴계처럼’, ‘선비처럼’은 저의 방황과 고민에 가슴 깊숙한 반향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은 한 짝을 이룹니다. 조선의 퇴계가 현대의 선비인 저자와 만난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 만난 두 선비는 혼돈과 난맥상의 작금 세태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정신적 고양과 실천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퇴계처럼’은 학식이 높고 근엄한 대학자로만 알았던 퇴계가 아니라 평생토록 자신을 낮추고 자신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과 공감하고 배려했던,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실천적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자로서 퇴계와 학문으로서의 퇴계학에 관한 그 어떤 책보다 퇴계가 일상에서 어떻게 ‘겸손’과 ‘배려’, ‘희생정신’을 실천했는지를 가슴속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퇴계의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선비처럼’은 행정고시를 거쳐 30년 넘도록 경제관료였던 저자가 안동 퇴계 종택 뒤 산기슭에 위치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머물면서 퇴계의 선비 정신을 전파하며 성과를 글과 강연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배려와 섬김’이라는 선비와 선비정신을 현대에 다시 불러내어 오늘날의 새로운 가치관과 자신의 생활 지침으로 삼는다면,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이룩하는 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독자들을 진솔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장 천진기

—이 원고는 저자가 2016년 10월 11일 ‘세계일보’에 기고한 원고를 다듬어 수록한 것임을 밝힙니다.



목차

- 03

커버스토리

선비처럼, 처음처럼
- 04

조선 선비문화

국립전주박물관 ‘조선 선비문화’ 특성화를 소개드립니다
- 06

인물 소개

고봉 기대승, 마음을 논하다
- 08

학술 광장

선비의 나라사랑, 옛 지도로 피어나다
- 12

유관 기관 소식

가난을 즐긴 선비, 퇴계 이항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과 역할
- 18

박물관 풍경

특별전, 교육, 공연 프로그램 소개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ON
Vol 07. 2018



표지 설명
서화첩 書畫捷 (매화梅花)
이정직李定稷(1841~1910)
조선 1889년, 1900년, 1907년
종이에 먹, 30.0×22.0cm
전주38420
사군자, 바위, 국화, 매화 등 이정직이 그린 그림들과 글씨를 모은 서화첩 중 매화 그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굳은 기개로 피는 하얀 꽃과 은은하게 배어 나는 매향(梅香)이 느껴질 수 있도록 먹의 농담을 조절하며 운치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여백에 곁들인 제시와 함께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올바른 선비정신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인상을 현대에 제시하고 계승할 수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관람객에게 소개하여 과거 속에 박제된 막연한 인물들이 아닌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정신이 바로 선비문화에 달려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글 정대영(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 ‘조선 선비문화’ 특성화를 소개드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018년도부터 ‘조선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박물관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본향이자 한옥마을을 통해 전주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주에 찾아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하며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의 정수를 관람객에게 더 넓게 소개하고 이해를 높이는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주제들이 있겠지만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조선의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야 말로 선비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까닭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층에서는 ‘선비’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루하거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이들을 놀리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선비가 조선을 망치고 쇠락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비와 선비정신은 이와는 다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선비가 될 자격이 있었으나, 모든 양반이 선비라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선비는 자신의 배움을 실천하여 세상

을 밝게 만드는 ‘실천하는 지식인’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국난극복에 앞장섰고, 사회의 부조리를 가장 먼저 지적하였으며, 풍류와 문학을 통해 문화 창달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닦고 힘쓰는 수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올바른 선비정신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인상을 현대에 제시하고 계승할 수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관람객에게 소개하여 과거 속에 박제된 막연한 인물들이 아닌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정신이 바로 선비문화에 달려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전주박물관은 선비문화실의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향후 옛 선인들의 선비정신을 살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 선비문화와 관련하여 어린이박물관의 시설을 보완하고 선비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지역민들의 지식함양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물을 바라보는 선비(高士觀水圖)
강희안(姜希顔, 1417~146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봉 기대승, 마음을 논하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마음이나 감정에 관한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있을까? 서양에서는 스피노자(Spinoza, Baruch De, 1632-1677)가 『에티카(Ethica)』를 통해 감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면, 조선에서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이 사단칠정논쟁을 통해 마음에 대한 논의와 그 문제에 관해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 중기에 활약했던 고봉 기대승의 삶과 사상, 그리고 마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박해인(학예연구사)



1.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봉 기대승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숙부는 기묘명현의 한사람인 복재(服齋 奇遵, 1492-1521)이다. 아버지인 물재 기진(勿齋 奇進, 1487-1555)은 동생이 사회에 연루되어 죽자, 광주에 낙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이에 기대승 역시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다.

기대승은 부친에게 글을 배웠으며 매우 의젓하였다. 20세(1546, 명종 1)에는 향시 진사과에 응시하여 성균관에서 유학하였고, 32세(1558, 명종 13)에 문과에 응시하여 권지승문원 부정사에 임명되었다.¹⁾ 이후 기대승은 관료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명종대 후반-선조대 초반기는 척신정치가 청산되고 사림정치가 구현되는 정치적 변화의 시기였다.²⁾ 이에 기대승은 척신정치를 막기 위해 등용된 이량(李樛, 1519-1582)과 대립하며 사림세력과 정치적으로 뜻을 함께하였고, 선조 초반기에는 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림세력의 정치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사림 정치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였다.³⁾

기대승, 마음을 논하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사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仁], 수오지심(羞惡之心[義], 사양지심(辭讓之心[禮], 시비지심(是非之心[智]의 네 가지 감정을 가리키며 칠정은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慾]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 중 사단과 칠정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관해 고봉 기대승은 퇴계 이황과 편지를 통해 무려 4년이나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서로의 근본적인 주장은 수정되지 못했고 퇴계는 사단과 칠정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본 반면, 고봉은 사단과 칠정을 하나로 보고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⁴⁾

이는 인간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논한 것이다. 퇴계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부(사단)만을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고봉은 인간의 마음은 감정으로 드러난 것일 뿐,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퇴계는 마음의 기원을 중시한다. 반면 고봉은 상황의 맥락을 중시한다. 퇴계는 인간의 행위에 있어 마음의 기원이 선하면 선하다고 본다. 반면 고봉은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상황적 맥락에 적합하면 선이고, 부적절하면 악이라고 보았다. 즉, 고봉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이 사단이나 칠정이라는 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작용하는 의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⁵⁾

그렇다면 퇴계가 옳은 것일까, 고봉이 옳은 것일까? 두 사람의 논쟁 이후 조선 성리학에서는 주기론(主氣論)과 주리론(主理論)의 사상적 대립을 이끌어 내었고, 한국 성리학이 심성론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논쟁의 의의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내가 긍정적인 의도로 일을 행하였을 때, 상대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면 이는 선인가, 악인가? 내가 긍정적인 의도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일 것이며, 기대승은 이러한 상대론적 사고를 일찍이 터득한 것이다.



1. 고봉집(高峰集),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1527~1572년), 1778년,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1) 이상하, 『퇴계 생각』(글항아리, 2013), pp. 155-156 참조.

2) 김영두, 「명종·선조 연간의 정국과 고봉 기대승의 정치 활동」, 『정치가 고봉 기대승, 큰 꿈 그리고 좌절』(경인문화사, 2016), p.15.

3) 위의 책, pp. 19-53 참조.

4) 김기주, 「사단칠정논쟁, 퇴계와 고봉의 학술적 교류와 도덕적 탐색」, 『국학연구』29(한국국학진흥원, 2016), pp. 137-138 참조.

5) 양선진, 「퇴계와 고봉: 사단칠정의 현대적 해석」, 『동양철학연구』87집(동양철학연구회, 2016), pp. 28-31 참조.

선비의 나라사랑, 옛 지도로 피어나다

글. 정대영(학예연구사)



대동여지도를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축소해 제작된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123.5×7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산자 김정호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이름을 들어왔던 지도의 주인공. 바로 '대동여지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많이 듣다못해 이 지도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전설과도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 듯합니다. 사람들은 대동여지도의 이름에 경외심을 나타내며, 실제 크기의 모습대로 전시가 될 때면 가벼운 탄성을 내며 자리에 한참을 머물곤 합니다. 그렇다면 대동여지도를 왜 그토록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도를 제작한 김정호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필자는 김정호를 조선시대 진정한 선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비라면 응당 추사 김정희나 다산 정약용과 같이 기라성 같이 학문과 예술세계를 성취한 양반이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비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의 지식과 사상을 실천하여 세상을 발전시킨 사람, 즉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선비상을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산자 김정호는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유물과 인물은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가운데서도 완성되지 않은 미편집 대동여지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술품은 완성된 모습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박물관의 전시회에서 보게 되는 대동여지도는

거대한 크기에 잘 배접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지도가 완성되기까지 힘겨웠던 김정호 선생의 노력들이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지만, 그러한 고뇌와 노력의 흔적이 유물로 드러나기는 어려웠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나간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미편집된 대동여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대동여지도 목판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박물관에는 최종완성본인 대동여지도,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목판, 그리고 목판에 시험용으로 찍었던 중간단계의 인쇄물이 모두 보관되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동여지도와 목판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미편집본 대동여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선생이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그의 지도제작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김정호 선생은 이미 1830년경에 <청구도>라는 지도를 제작하였고, 1850년경에는 <동여도>라는 상세한 지도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앞선 두 지도들이 상세하고 자세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뒤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내용상의 상세한 부분은 조금 적게 하되 더 많은 배포를 목적으로 목판에 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대동여지도보다 자세한 지도는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도도 목판으로 대량생산을 하면서도 편의를 도모하고 내용상 적절한

1. 대동여지도 목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1581호)
2. 대동여지도 인쇄본 낱장(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

대동여지도 전체의 낱장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총 48매의 지도가 일괄로 보관되고 있는데 각각의 지도는 폭은 동일하지만 넓이가 1m 내에서 각기 다릅니다. 표지에 해당되는 면에는 '신유辛酉'라는 기록이 있어 이 지도가 1861년경에 제작된 대동여지도 신유본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48장의 지도는 세로 22첩 가운데 3,4,5,6,7,12,16,17,18,19첩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역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의 대부분과 평안도, 강원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각 지도는 인쇄된 후 제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목판의 외곽에 해당하는 검은 면의 부분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균형을 맞추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정호 선생은 오랜 기간 끝에 이 일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한 전설과 왜곡된 이야기를 오랫동안 진실처럼 들어왔습니다. 목판이 불에 탔으며 김정호가 옥사했다는 이야기는 필자도 어린 시절에 누누이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하나 둘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대동여지도 목판 판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에 전시되어 있는 이 목판은 대동여지도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김정호 선생이 어떠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도를 만들어 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김정호 선생은 나무판의 남은 여백에 다른 지역의 지도를 함께 작성하기도 하였고 다른 문집의 목판과는 다르게 매우 얇은 판목을 쓴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니었던들 지금까지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김정호 관련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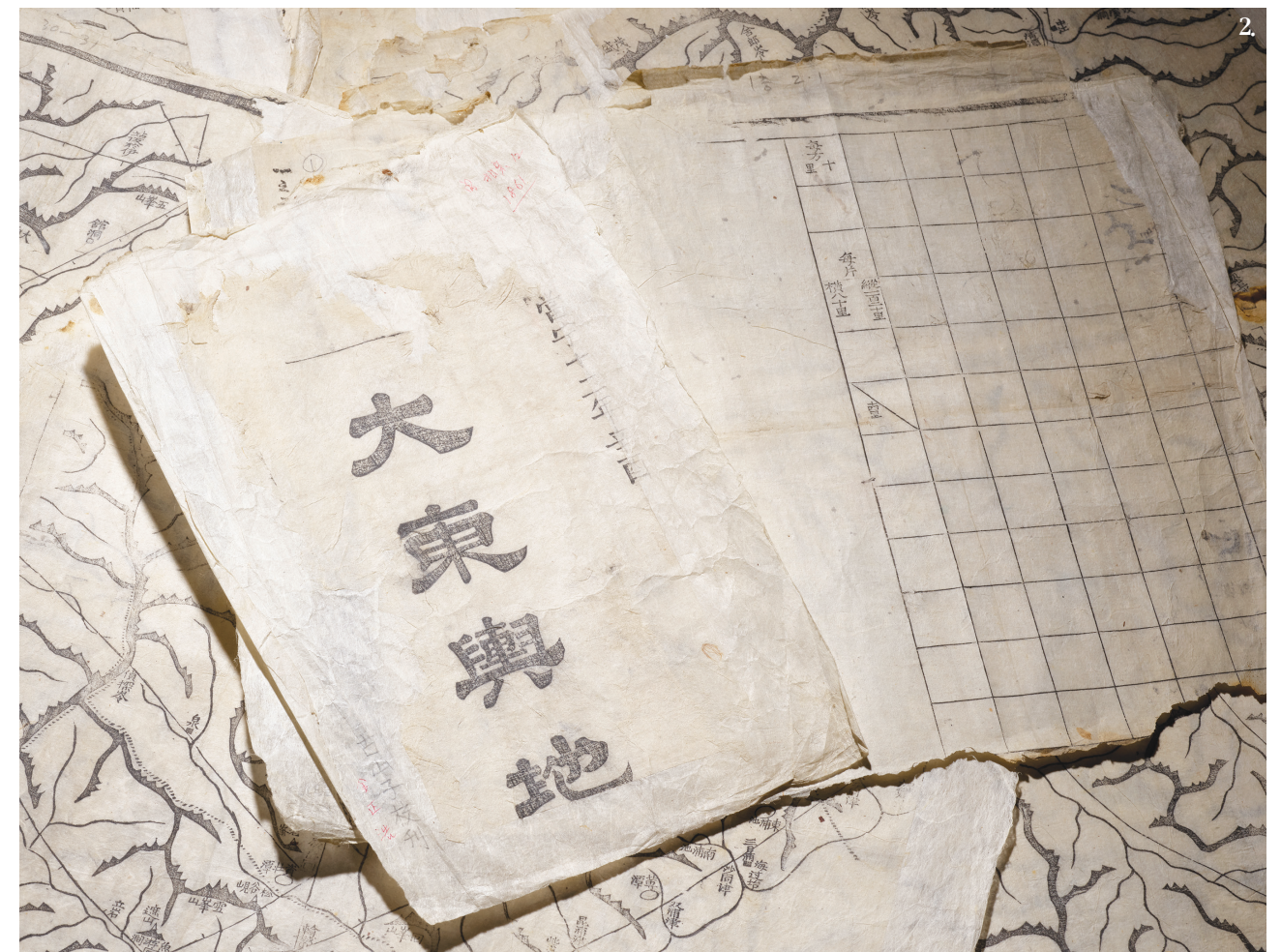
목판에 먹을 고루 묻혀 종이에 인쇄를 하게 되면 낱장 인쇄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자료들을 연이어 붙여 제본을 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완성본 대동여지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대동여지도가 목판에 찍혀서 어떤 형태로 가공되었을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한 궁금함이 생긴 것도 오래되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된 대동여지도 낱장은 지도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실마리가 되어 주는 자료였습니다.

대동여지도 전체의 낱장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총 48매의 지도가 일괄로 보관되고 있는데 각각의 지도는 폭은 동일하지만 넓이가 1m 내에서 각기 다릅니다. 표지에 해당되는 면에는 '신유辛酉'라는 기록이 있어 이 지도가 1861년경에 제작된 대동여지도 신유본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48장의 지도는 세로

22첩 가운데 3,4,5,6,7,12,16,17,18,19첩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역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의 대부분과 평안도, 강원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각 지도는 인쇄된 후 제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목판의 외곽에 해당하는 검은 면의 부분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각 지도는 뒷면에 흰색의 한지로 배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 정황상 인쇄한 이후 제본이 완성되지 않은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한지 배접은 2차적인 가공이나 수집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적인 의미의 선비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여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

는 '실천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호는 자신이 평생 배우고 발전시켜왔던 지도제작과 지리학의 정수를 대동여지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지식을 전파시킨 실천하는 지식인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옛사람들을 단순히 남겨진 유물을 통해 위대하다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은 우리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유물을 통해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 삶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다면,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옛 사람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호가 남긴 낱장의 지도를 통해 오늘날 지식인의 모습과 선비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

가난을 즐긴 선비, 퇴계 이황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지라 털옷이 없으면 겨울을 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양털 옷 한 벌로 20년을 지냈더니 털이 모두 빠지면서 구멍이 났구나. 새로 구입할 돈이 없으니 걱정이 다. 베 몇 필이면 살 수 있는지 알아봐주기 바란다. 그리고 살 궁리를 좀 해보아라.

글.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조선시대 안동은 유학의 산실이면서 정수精髓를 간직한 고장이었다. 그 중심에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 말 중국에서 도입된 유학은 퇴계에 의해 비로소 한국화韓國化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그는 안동을 넘어 조선의 대스승인 셈이다. 퇴계는 생전에 309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이들의 거주지는 안동을 비롯해 서울, 충청, 호남 등 전국에 퍼져 있다. 퇴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퇴계는 학문적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송을 받아왔다. 특히 그가 평소 실천해온 검소한 생활은 제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탄복할 정도였다. 퇴계는 입고, 먹고, 거처하는 곳에서 지나침을 항상 경계했다. 예를 들어 풍기군수로 있을 때 아들 이준李塤(1523~1583)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사연이 매우 감동적이다.



1.



2.

1.도산서당
소박한 초가삼간에 불과했지만, 퇴계는 이곳에서 309명에 달하는 제자를 양성
2.계상서당
방 한 칸과 반 칸의 툇마루로 구성

내 것과 신발이 너무 낡아서 새로 마련해야겠다. 그러니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는 무명 4.5필을 인편으로 보내주면 좋겠구나. 지금 이곳에는 베가 귀하고 또 내가 함부로 쓸 수도 없는 형편이다.

낡고 헤진 것과 신발을 바꿔야하지만 조정에서 내려온 무명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라 아들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평소 퇴계는 선비의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떳떳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산은 깊을수록 좋고 물은 멀수록 좋고 글씨는 맛이 있어야 하고 사람은 가난한 데서 낙樂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가 62세 되던 해에 손자 이안도李安道에게 보낸 편지 역시 심금을 울린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지라 털옷이 없으면 겨울을 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양털 옷 한 벌로 20년을 지냈더니 털이 모두 빠지면서 구멍이 났구나. 새로 구입할 돈이 없으니 걱정이 다. 베 몇 필이면 살 수 있는지 알아봐주기 바란다. 그리고 살 궁리를 좀 해보아라.

예수를 넘긴 유약한 노인이 구멍 난 양털 옷을 걸치고 추위에 떨면서도, 새 옷을 구입할 돈이 없어 이리저리 궁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선비의 고고함을 엿볼 수 있다. 퇴계는 아버지 이식李植(1463~1502)과 어머니 춘천박씨 사이에서 6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춘천박씨는 농사와 누에치기, 길쌈 등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퇴계가 작성한 어머니 춘천박씨의 묘갈명에도 “길쌈을 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듯이, 어머니의 이런 고단한 삶을 지켜보면서 성장한 퇴계는 자연스럽게 검약함을 몸에 익혔을 걸로 생각한다. 퇴계는 ‘1식食3잔饌, 곧 ‘한 끼에 세 가지 반찬’이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엄격히 지켜나갔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전한다.

선생은 매 끼니마다 음식은 두서너 가지를 넘지 않았으며 더욱 여름철에는 건포乾脯 뿐이었다. 젊은 사람도 먹기 힘든 잡곡밥을 고량진미처럼 맛있게 드셨다. 일찍이 도산에서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밥상에는 가지나물, 무나물, 미역뿐이었고 더 이상 없었다.

『퇴계선생언행록』에 실린 제자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회고하는 스승의 모습이다. 퇴계의 소박한 밥상에 대한 원칙은 제사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는 막내로 태어난 까닭에 자신이 모시는 제사는 없었지만, 큰집 제사에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귀한 기름에 튀긴 유밀油密果를 항상 마상에 두었다. 그래서 퇴계는 숨을 거두면서 “사치스런 제물은 쓰지 마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지금도 퇴계 종가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유과를 차리지 않는다. 퇴계는 거처居處를 할 때도 검약을 실천했다. 학봉 김성일은 “계상溪上의 집이 겨우 십여가十餘架에 불과해 겨울철의

3. 퇴계 불천위제례
자신의 제사상에 '사치스러운 제수祭需를 올리지 마라'

4. 퇴계 묘비
자신의 '무덤 앞에 웅장한 비석 대신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이라는
글자를 새긴 조그마한 돌을 세우라'



모진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운 비를 다른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했지만, 선생은 너그러운 지내셨다”면서 회고한다. 그래서 김성일이 “이처럼 비좁고 누추한데 어떻게 견디십니까?”하고 물으니, 퇴계는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못 느끼겠다”고 답했다. ‘계상의 집’이란 퇴계가 50세 무렵에 벼슬에서 물러나 독서와 후학양성을 하던 계상서당으로,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의 근원이 되는 장소이다. 계상서당은 방 한 칸과 반 칸의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협소해지자 도산서당을 세우게 된다.(사진1 계상서당) 도산서당은 퇴계가 직접 설계하고 용수사龍壽寺의 법련法蓮 스님에게 공사를 맡겼으나, 진행 도중 법련 스님이 입적入寂하자 정일淨一 스님이 마무리를 했다. 부엌 반 칸과 골방 반 칸, 그리고 한 칸 규모의 방 두 개로 이루어진 도산서당은 비록 소박한 초가삼간에 불과했지만, 퇴계는 이곳에서 309명에 달하는 제자를 양성했다. (사진2 도산서당)

평소 퇴계는 집안 자제들과 제자들에게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貧當益可樂)”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이 말은 『논어』〈학이편〉에 나오는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사는 것(貧而樂)’에서 유래했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아침까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떠합니까?”하고 물었을 때, 공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기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답했다. 퇴계는 공자의 이 말을 더욱 강조하여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퇴계는 눈을 감는 순간에도 질박한 선비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는 1570년 12월 8일에 숨을 거두기 직전 조카에게 유서를 쓰도록 했다. 첫째는 ‘조정에서 내려주는 예장禮葬을 사양하고 소박한 장례를 치르라’였다. 당시 퇴계는 어린나이에 등극한 선조임금을 위해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조항의 글이 담긴 <무진육조소無辰六條疏>를 지어 올렸으며, 또 <사잡四箴> · 『논어집주』 · 『주역』 등을 직접 강의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서 선조임금에게 퇴계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퇴계는 자신이 숨을 거두면 선조임금이 화려한 국장國葬의 예를 내려줄 것이라고 예측하고는, 이를 사양하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무덤 앞에 웅장한 비석 대신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이라는 글자를 새긴 조그마한 돌을 세우라’는 것이었다.(사진3 퇴계 묘비) 셋째는 자신의 제사상에 ‘사치스러운 제수祭需를 올리지 마라’였다.(사진4 퇴계 불천위제례)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과 역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수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17,000여 점을 조사하였고 이 가운데 약 1만여 점을 문중으로부터 기탁을 받았다. 조사 지역 및 범위는 영광, 나주, 함평, 보성, 장성, 장흥 등지이며 향후 서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 일반연구위원)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 협력, 공동 출현한 학술기관으로 2017년 9월 11일 재단법인 이 설립되었고 2018년 4월 6일 개원하였다. 호남의 역사 유산과 기록문화의 집성·연구·전시·교육을 통하여 호남권 인문한국학의 진흥과 차세대 전문 인력을 배양하고, 미래지향적 인문 학술기반 조성 및 문화심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호남지역은 물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도서, 산간 등 다양한 문화를 간직한 문화의 보고로서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특성에 힘입어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한국학 가운데서도 특히 호남지역문화에 대한 연구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학 전반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집성 및 국역이다. 호남지역 고문헌 및 근현대 자료의 수집·정리하고 원자료의 관리·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며, 호남권 역사문헌 및 선현문집 등 대중화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역주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두 번째 한국 근대 사상·생활문화 자원 발굴 및 집성을 위한 근대 문집 표점·영인 및 DB화, 근대 역사문화자원

개원 기념 현판 제막식 모습(2018년 4월 6일)





1. 나주 남평주조장 자료 조사(2018년 9월 9일)
2. 보성 문익점부조묘 관련 자료 조사(2018년 9월 13일)
3. 국립전주박물관 · 한국국학진흥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식 (2018년 11월 7일)

민간자료 집성, 광주학생독립운동 세계기록유산 사업 등 근대 100년의 역사자원을 집대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 청년·생활 한국학의 진흥과 확산을 위한 호남한국학 연구의 지원·확산, 한문 연수 과정 운영, 한국학 전문·교양강좌, 전라도 천년 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자와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 시·도민과 함께 하는 인문한국학을 이루고자 한다. 네 번째 호남한국학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호남권 대학·박물관·문화원·향교 및 민간소장 고문헌, 서화류, 근현대자료 등 전수 DB화, 호남권 한국학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중앙 기관과의 연계 통합 관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집성 및 국역의 '호남권 고문헌 및 근현대 자료 수집·보존·역주 사업'은 그동안 호남이 전통문화유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발굴·보존이 매우 빈약하였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가진 전문기관이 없었다는 각계계층의 요구에 부응하여 계획된 과제이다.

이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첫 번째 호남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 및 정리·보존하며, 두 번째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 DB 구축을 추진하여 정보화하고, 세 번째 조사·수집된 자료를 정리·연구하여 다양한 주제별로 현대적 수요에 맞춰 역주 국역하며, 네 번째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남지역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뿐만 아니라 연구·교육, 활용 등 호남지역 한국학 성과를 지역민과 함께 나누며 호남지역 한국학의 균형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수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17,000여 점을 조사하였고 이 가운데 약 1만여 점을 문중으로부터 기탁을 받았다. 조사 지역 및 범위는 영광, 나주, 함평, 보성, 장성, 장흥 등지이며 향후 서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소장처는 장성 행주기씨 금강 문중, 옥과 금산서사, 구례 문화류씨 운조루,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영암 모정 광산김씨, 나주 남평주조장,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영광 진주강씨 수은 강항 종가, 영광 광주 이씨 등이다. 주로 호남지역에서 대대로 세거한 문중 소장이 대다수이며, 자료 유형은 낱장의 고문서와 책 형태의 고서가 주를 이룬다. 나주 남평주조장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남평주조장의

홍방성씨 및 남평장 일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근현대 자료이다. 기존에 조선 시대 고문헌 자료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근현대 자료의 발굴과 수집은 근대 100여 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사·수집한 자료는 먼저, 현지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의 소장 경위, 가계, 묘소 및 주변 정보, 소장자의 구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리 작업은 소장처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자료의 분류 및 해체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류한 자료에 대해 건별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화가 완료된 후에는 목록 순서대로 원자료의 번호표(라벨링)를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런 다음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 정리한 목록 및 해제 등과 함께 DB로 구축한다.

목록, 해제, 사진 자료를 활용한 DB 구축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원자료의 열람을 최소화하여 자료의 손실을 줄이는 최적의 방안이며, 동시에 장소나 시간, 자격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웹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초 정리 작업 후에 그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목록 및 해제집, 영인본, 국역서 등과 같은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초청간담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

하기도 한다.

최근 10월에는 고흥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소장 고문서 자료 1,000여 점을 비롯해 고흥 관내에 산재한 고문헌 자료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멸실·훼손 위기에 처한 문화재급 자료들을 고흥군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보존하며 나아가 연구 및 교육 자료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 타 시·군과도 이와 같은 업무협약 관계를 형성하여 시·군의 안정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수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11월에는 국립전주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과 '조선의 선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여 향후 공동 연구 및 학술연구 진흥, 소장 자료의 공유 등 세 기관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영·호남의 선비정신과 문화생활, 사상교류 등 지역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거 선비들의 소통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학술적 교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호남한국학 기초자료의 수집·보존과 한국학의 연구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대외적으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여 특별전과 학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 이야기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 전시는 1980년대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굴 조사된 전북지역 가야 유적을 총망라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가야사 복원이라는 국책사업이 대두되면서 가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가야 유적을 종합하는 첫 전시라는 점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간 | 2018. 4. 24(화) ~ 8. 26(일)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무성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묻다

'무성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묻다'는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정읍 무성서원의 모습을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전시로써 선비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바쁜 일상에서 옛 사람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간 | 2018. 9. 4(화) ~ 9. 30(일)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



고려청자의 정점頂點을 만나다

부안청자·강진청자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과 고려 건국建國 110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시대 물질문화의 정수精髓인 청자靑磁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려청자 생산의 양대 산맥인 전북 부안扶安과 전남 강진康津에서 만들어진 최고급 청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기간 | 2018. 9. 22(토) ~ 2019. 2. 10(일)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교육

국립전주박물관은 어린이 뿐 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또한 어린이·가족을 위해 주중, 주말, 방학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상자

생생특독 토요 어린이 문화재 드로잉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생애 처음 느낀 문화재



한국화 교실



작은 문화 축전 달집태우기

공연

뮤지컬, 클래식, 국악, 인형극, 마술쇼 등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며, 관람객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작은 문화 축전 떡메치기



어린이문화재 그리기 잔치



작은 문화 축전 대보름 행사 공연



어린이날 축제

문화가 있는 날(+) 점프 공연



관람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 매일 마지막 수요일 오후 9시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1시간씩 연장)
3월~10월 매주 토요일 야간 개장(오후 9시까지) **관람 요금** 무료(특별 전시는 유료일 경우도 있음) **휴관 안내** 정기휴관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교통편** 시내버스
가족랜드, 금구방면 차랑 이용 7-1, 12, 19, 49, 62, 131, 554, 559, 644, 684, 685 택시 전주역에서 약 30분,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20분 거리 **고속국도** 호남
고속도로 남전주IC에서 약 15분 **승용차** 전주 IC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정읍방향으로 약 10k, 남전주 IC에서 전주방향으로 약 8km

ON_온

'온'은 '전체나 전부' 뜻을 지닌 순우리말.
'모두'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을 사랑하는 모두의 집지라는 의미
全州의 全州온전 전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듯할 溫, 평온할 穩,
쌓을 蘊 포함 On은 (거리적·시간적으로) '진보하다'라는 의미

